

2012 새해에는

6 조창현 광주신세계 대표

“고객 만족도 100%에 도전”

“광주신세계에 대한 지역민의 사랑과 관심이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객을 어떻게 잘 모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광주신세계의 현직인 대표를 맡은 지 2년차인 조창현 대표에게 여유와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는 이러한 자신감의 밑바탕에 지역민들의 광주신세계에 대한 진심어린 사랑과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조 대표는 “지역민의 기대감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어깨가 무겁지만 ‘지역친화와 상생’에 맞춰 모시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한다면 광주신세계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올 상반기 어려움에 대해 조 대표는 “지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광주신세계는 대대적인 리뉴얼을 통해 제2의 도약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해는 ‘스마트 워크(업무 간소화·통합)’를 통한 고객중심의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고 신규상품의 선점과 성장상품 개척, 지역 이슈 연계 마케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 대표는 현장의 아이디어를 듣고, 직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인간미 넘치고 소통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 생각이다. 즐겁고 신명나는



협력업체 발굴·중소지원 호남권 VIP 마케팅 강화

직장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고객선민의 자세가 나온다는 조 대표의 평소 지론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조 대표는 직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편의시설 확대와 ‘삼 마스터의 밤’ 등 소통과 어울림을 통해 남녀평등 고용기업 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우수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조 대표는 광주신세계를 끝없는 변화와 새로움,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꾸며나갈 계획이다. 조 대표는 “백화점은 고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지난해 24개의 신규브랜드 유치와 100여개 매장

의 리뉴얼을 통해 새로움을 선물했는데 올 해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 ▲최근 유행을 대표하는 상품 ▲한 발 앞서는 상품 추천까지 고객요구를 100% 충족하는 매장을 꾸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대표는 특히 올 해 비엔날레, 여수엑스포, F1대회와 중국 2만명 관광객 방문 등 국제행사를 통해 외국인 포함 역대 고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또한 오는 2014년 서울간 KTX의 완전개통을 앞두고 고객의 역의유출을 막고 여수, 순천, 남원 정읍 등 전남·북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VIP마케팅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근 화두인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대해 조 대표는 “신세계갤러리 매개로 한 문화사업, 지역 프 로젝트단 지원, 불우이웃 돕기 등 다양한 분야에 노력해 왔다. 올 해에도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소외된 이웃과 항상 함께 하는 광주신세계가 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와함께 “협력업체 발굴과 지원, 특산물, 중소기업 박람회 등을 통해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서겠다”며 “단순 장소제공 단계에서 벗어나 관 로개척과 디자인팀이 ‘제품 브랜드화’에 도움을 주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금융권 中企 설자금 12조 푼다

내달 10일까지...광주은행 6천억원 등 업체당 최고 1.3%P 대출 금리 우대

광주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설을 맞아 돈에 목마른 중소기업에 12조 4000억원을 빌려준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후 명동 은행 회관에서 추경호 부위원장 주재로 ‘중소기업 및 설 명절 자금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명절 자금공급 계획을

마련했다. 광주은행을 비롯한 16개 시중·지방은행은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운영자금으로 9조9000억원을 빌려준다. 이 돈은 원자재 결제대금과 종업원 임금 등으로 쓰인다. 광주은행은 설 자금에로를 겪고 있

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규자금 2000억원, 만기연장 4000억원 등 총 6000억원의 ‘설 특별자금 대출’을 편성, 오는 2월 10일까지 긴급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40억원 이내이며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최고 1.3%포인트 까지 우대해 업체의 부담을 덜어준다. 하지만 이번 지원대상에서 숙박업, 주점업, 등 사치향락업종과 부동산 중개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은행들은 기존금리보다 0.3~2.25%포인트가량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자금이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지점의 전권권을 완화해 계획이다. 5개 정책금융기관도 3조5000억원을 중소기업에 새로 공급하고, 대출 심사기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는 2조8500억원을 최대 2%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6400억원의 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올해 금융권이 계획한 중소기업 설 자금 공급은 지난해 실적(9조7000억원)보다 27.8% 증가한 액수다. /최재호기자 lion@연남뉴스



“설 선물엔 굴비죠” 10일 오후 광주신세계 지하 식품관에 마련된 설 선물 특별 코너에서 한 고객이 굴비 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 신세계는 지역 특산물 선물 세트를 포함한 설 선물 특별 코너를 21일까지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마이너스 통장 개설하세요” 은행사칭 대출사기 주의보

연해세 13건 958만원 피해 최근 은행원이 전화를 건 것처럼 발신번호를 조작한 대출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부터 9일까지 은행 전화번호를 도용한 대출사기 피해가 13건(피해금액 958만원)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기는 두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대출 중개업체 직원을 사칭한 범인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권유한다. 피해자가 통장개설을 요청하면 은행원을 사칭한 다른 범인이 전화를 해 마이너스 통장 승인 수수료나 보증보험증서 발급비용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금융원은 “은행원 전화를 통해 고객에게 대출명목으로 각종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소비자들은 익숙한 사기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원은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고객 안내문을 게시토록 지도했다. /연남뉴스

권혁세 금융원장, 대학생과 ‘금융토크’

내일 오후 3시 전남대

금융감독원이 지방대학 처음으로 전남대학교에서 오는 12일 오후 3시 30분 광주지역 대학생과 캠퍼스 금융토크’를 개최한다. 이번 캠퍼스 금융토크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최현민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 김해경 광주은행 영업본부장, 정일혁 삼성생명 사원 등 다양한 현장금융인들이 대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는 ‘산학연계 금융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인과의 주제로론, 대학생과의 자유토크 등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 지방금융·경제 활성화 방안, 대학생의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등에 대한 토론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토크회에 전남대 뿐 아니라 광주 소재 대학의 금융동아리와 특성화 고등학생들이 참가해 금융현실의 올바른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인다. 참가학생에게는 대학생용 금융소재(대학생을 위한 미니다터)를 제공하고 토틀 녹화영상물을 금융감독원 교육 홈페이지(edu.fss.or.kr) 등에 게시해 금융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한편 ‘캠퍼스 금융토크’는 대학생과 금융감독원·금융인이 함께 참여·토론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학연계 금융교육으로 지난해 11월 처음 개최된 이후 개최를 희망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밀수 1위 ‘명태’

지난해 부정반입액 780억원...1년새 60배 늘어



지구 온난화 여파로 명태가 한반도 연근해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추자 농수축산물 밀수 1위 품목이 됐다. 10일 관세청의 ‘농수축산물 불법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세관의 눈을 피해 몰래 들여오거나 정해진 수입 물량을 초과한 명태의 부정반입 적발액이 780억원에 달했다. 2010년(13억원)과 비교하면 60배 늘어난 수치다. 명태의 부정 수입 적발액은 2008년 4억원, 2009년 17억 원 등 매년 급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동해의 수온 상승으로 명태어획량이 급감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부정하게 수입하려는 행위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명태 어획량은 1980년대만 해도 10만에 달했지만 2010년 1,000t으로 줄었다. 명태 어획량이 20여 년 만에 10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관세청은 명태 어리가 식탁에서 인기가 높아 밀수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명태에 이어 부정수입이 많은 품목은 생강(38억원), 콩(23억원), 게, 고추(이상 21억원) 등 순이었다. 2009년은 호도(297억원), 2010년은 고추(98억원)가 부당수입 적발 1위 품목이었다. 작년 농수축산물의 부정 수입 적발액은 1316억원에 달했다. 수산물이 9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농산물과 축산물은 각각 314억원, 8억원이었다. /연남뉴스

Advertisement for Hanjeda (한국제다) traditional Korean food products.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green tea field and lists various products like 'Gamsong SET', 'Dadam SET', 'Ujeonggamo', and 'Gamsa SET'. The text emphasizes that Hanjeda is a 60-year-old company with 100,000 acres of self-cultivated tea fields. It also mentions awards and certifications received by the company.

Advertisement for 'Ibneajim' (이쁜아짐) 2012 New Year Hit Business Chain Point Large Gathering. The main focus is on 'Cheolpan Kongnamul Bulgoggi' (철판콩나물불고기), a popular Korean dish. The ad lists various menu items and prices, such as 'Cheolpan Saengori Bulgoggi' for 5,000 won and 'Cheolpan Daddari Bulgoggi' for 6,000 won. It also promotes a 'New Year's Special' with a 5,000 won discount.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business development department at 062-265-8900.